

## 가깝지만 먼 시간 지각의 역설: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의 적합성 효과

임 지 은<sup>†</sup>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첫째,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와는 다른 시간 지각인 시간적 결과를 문헌 분석을 통해 구분하고 둘째, 이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인식이 자기해석 및 조절초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적 결과는 미래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적 거리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적 결과는 기존 문헌에서 자기해석과의 연관성만 존재했고 이를 문화 차 변수로만 인식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이것이 개인차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해석과 시간적 결과에 조절초점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적 거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기해석자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가 사건의 결과가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여긴다. 둘째, 자기해석, 조절초점,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가 상호작용하여 시간적 결과 인식을 변화시킨다. 이 연구를 통해 시간적 거리 지각에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 시간적 결과

---

<sup>†</sup> 주 저자 : 임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메시지도 판단 과정과 근거, 선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 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생이 수업 추천에 관한 게시 글을 본다고 하자. 당장 이번 학기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이나 듣지 못하면 졸업 안 되는 과목에 대한 팁을 적은 글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반면 한참 후에 졸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입생의 경우에는 과목이 얼마나 까다롭나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등이 더 매력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사건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그 대안이 가지는 매력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광고 메시지는 즉시, 바로,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시간 단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사용되는 시간 메시지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진 특성은 설득에 있어 덜 고려되는 듯하다. 무조건 가까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가깝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설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시간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니며 때문에 같은 단서를 주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이 보이지 않는 변수라는 특징은 시간의 주관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맥락 의존적 특성이 강하다. 즉 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 문화적인 배경(예: Graham, 1981), 개인차(예: 김경욱, 2010; Kees, Burton, & Tangari, 2010),

다양한 상황적 맥락(예: Joshi & Fast, 2013; Redelmeier & Kahneman, 1996; Sackett, Meyvis, Nelson, Converse, & Sackett, 2010)이 존재한다. 시간이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사람들의 다양한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Ariely & Zakay, 2001)에서 시간 지각은 심리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사였다.

문제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항상 주어지고 동시에 그 형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연구 내용에서도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예: Shipp, Edwards & Lambert, 2009; Szpunar, 2011)에서 주관적인 시간 지각이 연구되었지만, 그 결과들은 제각각이다. 시간적 거리에 관한 연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시간이 주관적인 변수라는 점을 더하면, 시간적 거리의 인식 역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중 하나로, 자기를 해석하는 방식 즉 자기 관점(self-view) 또는 자기해석(self-construal)에 따라 시간적 거리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미래 사건에 대해 더 추상적이고 더 먼 미래라고 여기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같은 미래 사건도 더 구체적이고 가까운 미래라고 여긴다(Lee, Lee & Kern, 2011; Spassova & Lee, 2013).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인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기해석수준에 관한 연구는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또한 기존에 연구된 문화 비교 문헌들에 따르면 시간 인식은 문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며 문화는 사람들의 특정 행동(예: 쾌락소비, 저축 등)에 영향을 미친다(예: Graham, 1981; Hofstede & Bond, 1988). 예를 들어 Hofstede의 문화적 차원

(Hofstede & Bond, 1988; 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하는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장기지향’적 성격 즉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특징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앞서 작성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의 연결 결과는 모순된다. 왜냐하면, 원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유교문화권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성격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11, Markus & Kitayama, 1991). Lee와 Semin(2009)은 이것에 대해 시간 인식의 역설이라고 불렀고, 두 개념은 다른 종류의 시간적 거리라고 밝히고 있다. 한쪽은 사건의 발생을 측정하는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이며, 다른 한쪽은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는 내용인 결과에 대한 시간적 거리, 즉 시간적 결과(temporal consequences)라고 설명한다.

Lee 등(2011)은 실증 연구를 통해 이 논의를 확장했다. 간단히 말해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 즉 ‘지금 나로부터 사건이 시작하는 때’까지의 거리와 ‘미래 사건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는 시간적 거리, 즉 시간적 결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문화권 차이에 기반을 둔 연구로 밝혔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해석이 현재 개인차 변수로 사용되는 것처럼 시간적 결과라는 또 다른 시간적 거리 지각 역시 문화 차가 아니라 개인차로 인식될 수 있는 범주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시간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 차이와 자기해석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결 고리 중 하나가 조절초점 이론이다(Lee et al., 2011). 독립적 자기해석이 가지고 있는 자주적이며 성취를 강조하는 특성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

표인 촉진 목표에 익숙하며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연관이 있는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책임을 중요시하는 특성은 잃지 않는 것에 더 민감한 예방 목표와 연관된다. 목표달성에 드는 시간 비용을 생각해보면 촉진 목표인 성취와 열망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목표지만 예방 목표인 안전과 책임은 지금의 주변을 둘러보게끔 만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까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와 조절초점은 연관이 있다(Pennington & Roesse, 2003).

간단하게 말해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은 촉진 초점이 더 익숙한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먼 시간적 거리를 더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은 예방초점이 더 익숙한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건을 좀 더 가까운 시간 거리로 인식한다.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관계에 조절초점이 관여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적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조절적합성을 느낄 때, 즉 자신의 조절목표와 주어진 정보가 잘 맞는다(fit) 경우 그 특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Cesario, Grant, & Higgins, 2004) 자기해석, 시간적 거리, 조절초점이 잘 맞는 경우 시간적 결과를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사람들이 사건의 발생 시간을 길게, 혹은 짧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기해석이 있다. 자기해석, 연구에 따라서는 자기 관점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를 말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자기해석은 자신과 사회가 독립적이라고 지각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자신과 사회가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구분된다.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자신을 단독으로 보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독특하고, 구별된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독립성과 자기의존(self-reliance)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예: 영미 문화권)에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며, 자기 해석을 타인과의 관계와 의무 속에서 정의하며 이런 특성은 개인적 소망과 욕망을 넘어서 의무와 책임에 가치를 두는 문화권(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흔하다(Lee et al., 2011).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예: Cousins, 1989, Kanagawa, Corss, & Markus, 2001; Markus & Kitayama, 1991) 자기해석에 따라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힌다. 독립적인 자기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설명할 때 심리적 특성, 성격, 태도와 같이 탈 맥락적 요소를 사용하는 반면,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을 사회적 상황(예: 가족 관계)과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Spassova와 Lee(2013)는 이 명제를 실험에서 조작하여, 문화 차뿐 아니라 개인차와 상황 점화와 같은 범주에서도 자기해석에 따라 표상을 더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힌다.

자기해석에 따라 어떤 표상을 더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자기해석과 해석수준 이론(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10) 사이의 연결을 제안한다. 해석수준 이론

은 주어진 사건에 대해 그것의 심리적 거리가 먼지 혹은 가까운지에 따라 사고 과정이 달라짐을 설명한다. 여기서 심리적 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기준점에서 주어진 사건이 가깝거나 혹은 먼 주관적 경험이다(Trope & Liberman, 2010). 다시 말해 사건의 발생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거리뿐 아니라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확률적 거리의 네 종류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더 추상적인 표상인 상위해석수준으로 사고가 이루어지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더 구체적인 표상인 하위해석수준으로 사고가 이루어진다. 시간적 거리의 경우로 보자면, 사건이 가까운 미래라고 지각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사고하며 반면 더 먼 미래라고 지각할 경우 더 추상적으로, 즉 상위해석수준으로 사건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받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Trope & Liberman, 2010). 위에 예시처럼 사람들은 먼 시간적 거리 메시지를 제시하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잘 연결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했을 때 이 사건이 더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예측한다(Liberman, Trope, McCrea, & Sherman, 2007). 이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해석수준이 변할 뿐 아니라, 해석수준의 차이에 따라 시간적 거리도 다르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가 상호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특정 해석수준에 접근이 더 가능한 사람이 같은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해 시간적 거리를 특별히 더 가깝거나 멀게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관적 시간 거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다른 변수들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 제기되었으며(Maglio, Trope & Liberman, 2015; Spassova & Lee, 2013), 이 중 하나가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의 연구이다(Lee et al., 2011; Spassova & Lee, 2013).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가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해석에 따라 심리적 거리 중 하나인 시간적 거리 역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Lee 등(2011)의 연구는 이 가설을 증명하여 시간적 거리 지각과 자기해석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수준을 나타내는 사람들(동북아에 사는 동양인)은 사건의 시간적 거리를 더 가깝게 지각하는 반면, 독립적 자기해석수준을 나타내는 사람들(북미에 사는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더 먼 시간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assova와 Lee(2013)는 이를 문화 차가 아닌 개인차/상황 차로 조작하여 논의를 확장했으며 이 현상이 일관적임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들은 자기해석의 수준에 따라 특정 시간적 거리에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시간적 거리는 앞서 심리적 거리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발생 거리 즉 지금부터 사건이 시작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 시간적 거리에 관한 역설

한편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에 관한 연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제시했듯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같은 미래라도 더 짧게 여기고, 독립적 자기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더 길게 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Hofstede의 문화적 차원(Hofstede & Bond, 1988; 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에 따르면 한국을 포

함한 유교문화권은 ‘장기지향’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문화 차원에서 장기지향적 성격은 사회가 시간상으로 먼 가치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집단주의적(collectivistic)인 동양 문화권은 서구의 문화에 비해 더 먼 미래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 Maddux와 Yuki(2006)의 연구 역시 동아시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사건을 더 멀게 본다고 보고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사건을 더 넓고 복합적인 스펙트럼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장은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전반적(holistic) 사고를 한다고 알려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그리고 장기지향적 특성은 서로 모순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해석 역시 문화 비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여기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유교문화권에서 더 일반적인 성향이기 때문이다. 시간 인식에 대해 한쪽에서는 미래를 짧게,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길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Lee와 Semin(2009)은 이것에 대해 시간 인식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Hofstede의 장기지향은 결과의 시간적 거리를 나타낸 반면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는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둘은 시간적 거리에 있어 다른 차원을 측정한다. 즉 장기지향적 특성은 사건의 시간적 결과의 길이,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는 사건이 생기는 (시간적) 거리의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실험(Lee et al., 2011)을 통해 증명한다. 연구 결과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해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문

회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선시 되는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사건이 더 먼저 생길 것으로 예측했고(즉 미래를 더 짧게 봄) 그 결과가 더 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즉 사건의 시간적 결과를 더 길게 봄). 두 개의 다른 시간적 거리, 즉 해석수준이론에서 설명하는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사건의 발생까지의 시간)와 사건 후의 시간적 거리(시간적 결과)가 모두 자기해석과 연관이 있었다.

기존 연구는 자기해석과 시간적 결과를 문화 비교 연구 차원에서 문화권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기해석이 현재 개인차 변수나 상황적 변수로서도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예: Gardner, Gabriel, & Lee, 1999), 자기해석과 연관이 있는 변수인 시간적 결과 역시 개인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간적 결과에 관해 서술하는 문헌들은 자기해석 포함 그 기초를 문화 차로 두고 있다. 만일 개인차 수준에서 자기해석과 시간적 결과의 관련성을 증명한다면 시간적 결과라는 변수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시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시간적 결과에 대한 차이를 최대한 동질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실험군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시간적 거리와 결과에 대해 동시에 설명한 연구는 아직 논의가 시작단계이며 소비맥락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맥락에서 시간적 결과에 대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시간적 결과는 미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의 효과

가 얼마나 유지 될지 그 정도를 지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시간적 ‘결과’ 부분은 제품 소비 후의 영향력으로 본다.

#### 조절초점과 조절적합 효과

Lee 등(2011)에 따르면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와 자기해석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논리적 고리가 조절초점이다. 조절초점 이론(Higgins, 1997)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 동기에 따라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밝힌다. 촉진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고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성취, 성공에 집중하는 반면 예방초점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실패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안전, 보호, 의무와 책임에 둔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집단적 의무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상기했을 때, 예방초점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논리적 연관이 있다. 또한, 독립적 목표를 가진 자들이 그들 자신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을 보면, 촉진초점과 독립적 자기해석의 연결이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Lee et al., 2011).

이뿐 아니라 조절초점 자체가 해석수준에서의 시간적 거리와 연결이 있다. 예를 들어 Pennington & Roese(2003)의 연구에 따르면 먼 시간적 거리에서는 촉진초점으로, 가까운 시간적 거리에선 예방초점이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Mogilner, Aaker와 Penningto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목표 실패의 고통이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보다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예방 틀이 더 매력적으

로 느껴지며,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 목표 획득 시의 쾌감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촉진 틀로 제시된 제품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촉진초점과 먼 시간적 거리, 예방초점과 가까운 시간적 거리의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절초점 이론은 사람들의 조절목표(또는 특성)와 잘 맞는 정보나 메시지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만일 주어진 정보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촉진 또는 예방)이 맞는 경우 조절적합(regulatory fit)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확장된다(Higgins, 2000, 2005). 조절적합은 개인의 조절초점과 목표 추구방법이 일치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이 조절적합을 경험한다면, 다시 말해 사고하는 방식과 맞는 정보를 접했을 때 ‘적합하다(feeling right)’라는 감정을 느끼며, 이런 감정은 적합에 따른 가치(value from fit)로 이어져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 참여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Freitas & Higgins, 2002).

적합성은 반응의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1). 즉 특정 감정과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긍정적 정보에 연결한다면 적합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것은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Cesario et al., 2004).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조절초점의 연결을 종합해보면 더 ‘적합’하게 맞는 상황, 즉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띄는 사람이 예방초점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를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독립적 자기해석을 띄는 사람이 촉진초점의 먼 메시지를 인식하는 경우에 이것이 더 잘 ‘맞다’ 혹은 ‘적합하다’라고 인식하며 상황에 대해 더 강렬하게 해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메시지를 사용하여 조절적합을 보는 경우 메시지가 득 틀로 제시되는지 또는 실 틀로 제시되는지에 따라 특정 메시지 수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살펴본다(김주석 & 이형권, 2012). 예를 들어 자기해석, 시간적 거리, 메시지의 득/실 틀이 메시지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Ponders, Lee와 Mackert(2015)의 연구는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 사이에는 적합효과가 있으며 이는 득/실의 메시지 틀에 의해 매개된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자기해석이 점화된 사람은 1년 메시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사람은 1일 메시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이 효과는 메시지 틀에 따라 변화하여, 독립적 자기해석자가 다른 조합의 메시지보다 먼 거리-득 메시지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가까운 거리-실 메시지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hen(2016)의 연구 역시 독립적 자기해석자가 먼 거리의 득 메시지에서 더 설득이 잘 되었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가 가까운 거리의 실 메시지에서 더 설득이 잘 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기해석, 조절초점 그리고 시간적 거리 사이에 일종의 조절적합 효과가 있는 것이다.

조절초점과 자기해석과 시간 인식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또 다른 시간적 인식인 시간적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조절초점과 자기해석, 시간적 거리가 적합 효과로 인해 시간적 결과를 더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 결과가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적 결과에 대한 정의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시간적 결과와 시간적 거리를 동시에 제시하는 연구 역시 시도 단계이며 직접

조절초점을 변수로 활용해서 시간적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기존 문헌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시간적 결과에서 조절초점의 역할을 직접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자기해석과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 간의 적합효과 그리고 시간적 거리에 대한 역설까지 살펴보았다. 문헌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은 미래 사건이 가깝게 발생할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독립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은 사건을 더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여긴다. 한편 문화 비교 문헌은 시간적 거리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라 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반드시 (모든) 가까운 시간적 거리 상황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간의 어떤 부분에 접근하는지,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까지의 거리(해석수준이론의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인지 아니면 사건 후 영향력(시간적 결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해석은 (미래)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뿐 아니라 그 사건이 지속하는 시간 즉 시간적 결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Lee 등 (2011)의 연구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이 시간적 결과를 더 길게 본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문화 차 연구로서 진행이 되었으며, 또한 소비상황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동반하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아직 의문인 부분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맥락에서 이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가설 1.** 개인의 자기해석수준에 따라 소비

후 영향력 즉 예측된 시간적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독립적 자기해석자에 비해 소비에 대한 영향력을 더 길게 판단할 것이다.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의 관계는 그들이 보이는 조절초점과도 연관이 있는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은 의무에 익숙한 자들로 예방초점이 더 익숙하지만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성취가 중요한 자들로 촉진초점이 더 익숙하다. 그리고 조절초점과 시간적 거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Pennington & Roese, 2003)를 종합하자면, 독립-촉진-먼 시간적 거리 그리고 상호의존-예방-가까운 시간적 거리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적합성은 적합한 요소들끼리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Lee 등 (2011)의 연구에서는 조절적합성으로 인해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가 맞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절초점, 자기해석, 시간적 거리의 조합이 조절적합성에 의해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Pounders et al., 2015). 이 점을 생각한다면 조절적합성에 의해 각각의 조합(즉 상호의존-예방-가까운 시간적 거리 조건, 독립-촉진-먼 시간적 거리 조건)에서 더 시간적 결과를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가설 2-1.**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가까운 시간적 거리와 예방초점 조건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자에 비해 더 시간적 결과를 길다고 판단할 것이다.

**가설 2-2.**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먼 시간적 거리와 촉진초점 조건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



석자에 비해 더 시간적 결과를 길다고 판단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실험설계

서울 소재 모 여자 대학교 내 재학생 대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45명을 제외한 총 1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계는 2(자기해석: 독립/상호의존)x2(조절초점: 촉진/예방)x2(시간적 거리: 먼/가까운)의 삼원무선요인설계로 진행하였다.

### 독립변수

**자기해석.** 자기해석은 Singelis(1994)의 자기해석 원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양윤, 김민재(2010)의 수정된 자기해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독립적 자기해석 그리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각각 7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다.

Singelis(1994)에 따르면 한 개인이 두 성향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향적 자기해석을 측정할 경우 한쪽 자기해석이 다른 자기해석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성향적인 상호의존 자기해석자는 독립적 자기해석 경향보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아야 하고,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정도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양윤, 김민재(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위수 분리를 하였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독립적(상호의존

적) 자기해석자의 경우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해석척도의 결과는 중위수보다 높고 동시에 상호의존적(독립적) 자기해석척도의 결과는 중위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만이 선정되며 둘 다 높거나 낮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 척도의 중위수는 34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중위수는 27점이었다.

**조절초점.** Chen(2016), Pounders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해 실험 내에서 메시지 틀을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촉진 메시지는 광고 대상을 소비했을 때 얻는 이득을 제시했으며, 예방 메시지는 광고 대상을 소비하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시간적 거리.** Chen(2016), Pounders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해 제품 광고 안의 시간적 거리를 조작하였다. 광고 내 메시지에서 먼(1년 뒤) 경우와 가까운 경우(1주일 뒤)로 조작하였다.

### 종속변수

**시간적 결과.** Lee 등(2011)의 연구를 참고해 이 연구 내 질문과 유사하게 “이 축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로 질문하였고 2주일 이하에서 1년 이상까지 1에서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측정도구 및 절차

측정도구는 1주일 혹은 1년 뒤 개최되는 음악 축제 광고이다. 이 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촉진이든 예방 메시지도 어색하지 않게 어울릴 수 있고, 둘째, Lee(2011)의 연구에서 측정도구가 지역 축제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으며 Spassova와 Lee(2013)의 연구에서도 역시 측정도구가 스포츠 활동이나 여행과 같은 경험 소비를 다루고 있어 이와 유사하고 동시에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익숙한 소재로 선정하였다.

광고는 시간적 거리와 조절초점이 각기 다른 총 4가지의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먼(가까운) 시간적 메시지의 경우 “1년 뒤(1주 뒤), 기다리던 축제가 온다!”라고 제시하였으며 촉진초점의 경우 “다양한 음악을 통해 당신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방초점의 경우 “다양한 음악을 통해 당신의 편안한 시간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제시하였다. 네 가지 광고 중 하나의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로 한 가지만 제시하고, 사건의 시간적 결과를 조사한 후, 방해과제(간단한 미로 찾기 게임)를 제시해 학습 효과를 제거한 후 성향적 자기해석을 검사하고, 조작점점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도구는 SPSS 21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조작점점

분석에 앞서 조작점점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각 주어진 메시지의 시간적 거리 지각을 질문하였으며 ‘1주일 뒤’ 메시지( $M=3.22$ ,  $SD=1.42$ )를 ‘1년 뒤’ 메시지( $M=5.08$ ,  $SD=1.27$ )보다 더 가깝다고 지각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9.1$ ,  $p<.001$ ). 또한, 가외 변수일 수 있는 음악 축제 및 음악에 대해 주관적 지식 여부(“음악 축제(음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와 관여 수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을 측정하였고 역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각각  $F=1.0$ ,  $F=1.2$ ,  $p>.05$ ) 참여자들의 음악 혹은 축제에 대한 관여와 지식 여부에 상관없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메시지의 촉진과 예방 조작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손실을 막고자 하는지(예방 메시지), 메시지가 이득에 접근하는지(촉진 메시지)를 7점 척도에서 질문하였으며 4점 이하로 응답한 응답자는 삭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시간적 결과

가설과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가설 1인 자기해석이 시간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기해석의 주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4.92$ ,  $p<.05$ ).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나타내는 경우( $M=4.47$ ,  $SD=2.03$ )에 독립적 자기해석( $M=3.85$ ,  $SD=1.96$ )보다 더 사건의 결과에 대해 길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1과 가설 2-2는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 세 변수에 따른 시간적 결과 즉 삼원상호작용에 관한 것인데, 표 2를 보면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걸 알 수 있다( $F=4.09$ ,  $p=.045$ ). 다시 말해 자기해석과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시간적 결과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삼원상호작용이 나옴에 따라 단순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조건에서 조절초점과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 $F=10.36$ ,  $p<.01$ )이 유의하였

임지는 / 가깝지만 먼 시간 지각의 역설: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의 적합성 효과

표 1.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에 따른 시간적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해석					
	독립		상호의존		전체	
	촉진 M(SD)	예방 M(SD)	촉진 M(SD)	예방 M(SD)	촉진 4.20(1.96)	예방 4.11(2.08)
먼 시간적 거리	4.55(1.99)	4.10(2.17)	5.26(1.94)	4.00(1.67)	4.46(1.98)	
가까운 시간적 거리	3.40(1.43)	3.30(2.00)	3.62(1.96)	5.17(2.18)	3.84(2.01)	
전체	4.00(1.82)	3.70(2.10)	4.40(2.10)	4.54(1.99)	4.16(2.01)	
	3.85(1.96)		4.47(2.03)			

표 2. 예측된 시간적 결과에 대한 삼원분산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eta^2$
자기해석	18.32	1	18.32	4.92*	.03	.031
조절초점	.17	1	.17	.05	.83	.000
시간적 거리	14.72	1	14.72	3.96*	.05	.025
자기해석*조절초점	1.73	1	1.73	.46	.50	.003
자기해석*시간적 거리	5.40	1	5.40	1.45	.23	.009
조절초점*시간적 거리	24.97	1	24.97	6.71*	.01	.042
자기해석*조절초점*시간적 거리	15.24	1	15.24	4.09*	.05	.026
error	569.39	153	3.72			
total	647.12	160				

\*  $p < .05$

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순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촉진과 예방초점에 따른 시간적 결과의 지각이 차이가 났다( $F=5.36, p<.05$ ). 구체적으로 예방초점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 $M=$

5.17,  $SD=2.18$ ) 촉진초점에 비해( $M=3.62, SD=1.96$ ) 더 시간적 결과를 길게 예측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가까운 거리의 촉진 메시지보다 가까운 거리의 예방 메시지에서 더 시간적 결과를 멀리 지각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가설 2-2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촉진초점, 시간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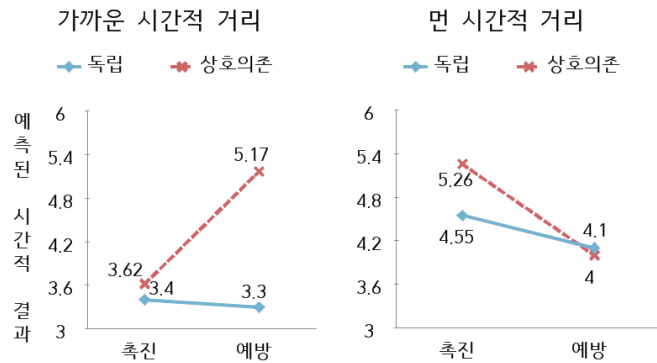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에 따른 예측된 시간적 결과의 삼원상호작용

가 지각된 시간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했다. 그림 1에서 드러나듯, 단순상호 분석의 결과 독립적 자기해석의 경우 축진초점과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F=1.17, ns$ ) 이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에 표 2과 그림 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 시간적 거리에 대한 주효과( $F=3.96, p=.049$ )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시간적 거리( $M=3.84, SD=2.01$ )보다 먼 시간적 거리( $M=4.46, SD=1.98$ )에서 더 시간적 결과를 길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거리와 조절초점의 이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6.71, p<.05$ ). 구체적으로 먼 시간적 거리에서 축진초점의 메시지( $M=4.88, SD=1.98$ )가 예방초점의 메시지( $M=4.05, SD=1.91$ )보다 더 시간적 거리를 멀리 판단했고, 가까운 시간적 거리에서는 예방초점의 메시지( $M=4.18, SD=2.26$ )가 축진초점의 메시지( $M=3.51, SD=1.71$ )보다 더 멀리 판단했다. 다만 주효과 분석 결과, 먼 시간적 거리 조건에서 조절초점 수준에 따른 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4.01, p<.05$ ).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가 먼 시간적 거리에서도 조절초점에 따른 시

간적 결과 지각이 변화했으며 그 효과가 유의미했다( $F=4.89, p<.05$ ), 구체적으로 축진 메시지( $M=5.26, SD=1.94$ )에 노출된 집단이 예방 메시지( $M=4.00, SD=1.67$ )보다 더 시간적 결과를 길게 예측하였다.

## 논 의

자기를 인식하는 성향 변수 중 하나인 자기 해석은 그 수준에 따라 시간적 거리, 즉 사건이 발생할 시기 뿐 아니라 그 사건이 앞으로 가지는 시간 흐름인 시간적 결과를 인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분야에서, 지역에 따른 문화차를 최소화 한 상태에서 개인의 차이가 이 효과를 그대로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에서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자기해석이 또 다른 시간적 거리인 시간적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의 관계에 연관이 있던 변수인 조절초점을 포함해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 모두가 시간적 결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해석은 시간적 결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경우 독립적 자기해석에 비해 사건의 시간적 결과를 더 멀리 판단한다. 둘째, 이 효과는 조절초점과 메시지에서 제시된 시간적 거리에 의해 변화하였다. 특히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의 경우, 독립적 자기해석자에 비해 메시지에서 제시된 시간과 조절초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시간적 거리 조건에서는 예방초점의 메시지에서, 먼 시간적 거리 조건에서는 촉진초점의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 시간적 결과를 더 길게 지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해석과 조절초점은 시간적 거리와 연관이 있기에, 시간적 결과 역시 이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았다. 본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특히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보이는 주변의 맥락을 고려하는 특성이 시간적 결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증거는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제시된 조절초점과 시간적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독립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종의 ‘틀 효과’ 영향을 더 받은 듯하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보이는 맥락 의존적 특성이 바로 주변 단서에 대해 더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속성(Kanagawa, Cross, & Markus, 2001), 다시 말해 ‘맥락에 더 의존’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독립적 자기해석

자에 비해 메시지에서 제시된 시간과 촉진/예방 틀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메시지에서 제시된 시간이 시간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기점효과로서 단순히 제시된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더 길게 이어질 것이라 작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 메시지에 제시된 시간이 현재로부터 길거나 짧기에 이로 인한 기준점이 달라져 발생하였다. 둘째, 현재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건이라고 느껴지는 경우, 사건의 결과 역시 오래 지속될 것이라도 믿는 질적 지각 변화이다. 물리적으로 제시된 시간 그 자체가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임지은, 2017)에 따라, 두 번째 역시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살펴볼 만한 주제라 여겨진다.

시간적 거리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변수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고(Festjens & Janiszewski, 2015), 대부분의 소비자라면 인식할 수 있는 변수이며 동시에 이것이 소비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Ariely & Zakay, 2001). 반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Festjens & Janiszewski, 2015), 맥락 의존적인 특성(Peetz & Wilson, 2008)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을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정의하는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인식 즉 주관적 시간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의 결론은 다소 혼란스럽다(Shipp et al., 2009).

Shipp 등(2009)은 주관적 시간 지각에 대한 연구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로서 주관적 시간 지각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인 점을 든다. 똑같은 ‘주관적 시간 인식’이라는 내용을 가지

고 있더라도 어느 면을 다루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간이 객관적이면서(달력, 시계 등으로 측정 가능) 동시에 주관적(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에 따라 가깝게 또는 멀리 인식)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작적 정의가 시간적 거리 연구에서 중요하다(임지은, 2017). 다시 말해 주관적 시간 인식에서 어떤 시간을 다루고자 하는지, 시간의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석수준 이론에서의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를 분리하고, 두 차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Trope와 Liberman(1998)이 시간적 거리에서의 해석수준 차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또 확장하였다. 하지만 어떤 변수들이 사람들의 해석수준을 다르게 지각시키는지 그 사전변수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다는 지적(Spassova & Lee, 2013)을 바탕으로 최근 연구들은 해석수준 이론을 확장시켜 시간적 거리와 해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기해석과 시간적 거리의 관계이다.

한편 자기해석과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시간 인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로 문화 비교 연구에서 이루어진 영역으로서, 한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해 얼마나 오래 갈지 인식하는 사건의 시간적 결과이다. 이 시간적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특히 소비를 할 때 흔히 염두에 두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시간적 결과를 소비자 분야에서 적용시켜 시간적 거리에 대

한 연구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에 관련해서 Wong과 Wyer(2016)은 ‘관점 유연성(perspective flexibility)’ 개념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다. Wong에 따르면 장기 지향적 성향이 상황을 유연하게 보는 특성을 만들고 이 특성으로 인해 주변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관점 유연성이 높은 경우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도 더 쉽게 추상적으로 볼 수 있고, 먼 시간적 거리의 대상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보이는 사람들이 특히 조절초점과 시간적 거리의 영향을 더 받은 이유는 시간에 대해 보는 관점이 ‘유연’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의 축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특히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이 보이는 시간적 거리의 역설은 일어날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 미리 ‘앞당겨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혹은 시간 축을 당기고 밀고를 자유롭게 하는 성향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즉 관점 유연성이라는 개념처럼 사건의 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다양한 맥락에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제에서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주변 단서들이 많으니 짧다고 답변하며, 반면 이 사건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이 사건이 앞으로 다양하게 미칠 영향, 즉 맥락을 자연스럽게 고려하기 때문에 길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가 시간 축을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필요하다면 미래를 충분히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가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 근거로 시간 할인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선택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할인효과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선명함, 생생함이 할인효과를 줄여준다고 보고한다(Kassam, Gilbert, Boston, & Wilson, 2008). 흥미로운 점은 시간 할인연구와 문화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문화권(예: 중국)에서 시간 할인효과를 덜 보였다는 사실이다(Wang, Rieger, & Hens, 2016). 해석수준 이론의 바탕이 된 초창기 이론인 시간적 해석이론이 시간 할인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상기한다면(Trope & Liberman, 2000),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과 시간 지각의 생생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다양한 시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생각해 볼 또 한 가지의 시간 관련 변수는 시간에 관한 지각된 통제감이다. 지각된 통제감(힘)이 저축행동을 증가시킨다(Garbinsky, Klesse, & Aaker, 2014)고 알려져 있는데, 지각된 힘은 할인효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Joshi & Fast, 2013). 미래에 보상을 받는 선택지가 가지는 매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정도가 적어야, 즉 할인효과가 줄어들어야 저축행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Hofstede가 제안한 장기지향적 특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가치를 선호하는 것이며 장기지향적 특성을 가진 문화에서는 저축이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지향적 특성을 가진 문화권의 사람들은 시간을 더 잘 통제한다고 느끼는 것인가?

자기해석과 충동구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본 Zhang과 Shrum(2008)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이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에 비해 충동구매를 덜 한다고 보고하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타고난 충동성 성향을 억제하는 듯한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해석수준 이론과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는 사건의 시간적 거리를 짧게 보는 현상, 즉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와 하위해석수준의 연결을 밝히고 있다(Fujita, 2011; Fujita, Trope, Liberman, & Levin-Sagi, 2006). 하위해석수준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더 연관이 있다는 연구와 대비했을 때, 이 결론 역시 일종의 모순이 보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통제에 기반한 변수들과 통제와 관련된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 최대한 단일한 문화 집단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단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이 실험을 확장해서 자기해석 및 시간과 연관이 있는 변수인 성별이나 나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성향적 자기해석이 특정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Flinkenflogel, Novin, Huizinga, & Krabbendam, 2017)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절적합성과 관련해 앞으로 설득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Lee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과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가 맞는 조건에서 부정적인 상황은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은 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본 연구 역시 시간적 결과에 대해 조절초점,

해석수준, 시간적 거리 사이에서 일종의 적합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가 설득에 어느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설득 메시지에서 시간 단서를 자주 활용하는 만큼, 실제 소비자의 판단과 결정에 시간 변수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만큼, 시간과 소비자의 가치관은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예: Zimbardo & Boyd, 1999),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해석하는지 다양한 시간 지각에 대한 앞으로 더 풍성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성현 (2012). 화장품광고의 조절초점적합성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3), 1-14.
- 김경욱 (2010).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8.
- 김주석, 이형권 (2012). 조절적합메시지가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4(4), 141-176.
- 양 윤, 김민재 (2010). 자기해석, 초점정서, 광고 내 맥락이 금연 공익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1(2), 245-270.
- 임지은 (2017). 시간적 거리, 해석수준, 주관적 시간 지각이 광고메시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8(3), 441-459.
- Aaker, J. L., & Lee, A. Y. (2001). "I" seek pleasures and "we" avoid pains: The role of self-regulatory goals in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1), 33-49.
- Aaker, J. L., & Lee, A. Y. (2006). Understanding Regulatory Fi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1), 15-19.
- Ariely, D., & Zakay, D. (2001). A timely account of the role of duration in decision making. *Acta psychologica*, 108(2), 187-207.
- Buhrau, D., & Sujan, M. (2014). Temporal mindsets and self-regulation: The motivation and implementation of self-regulatory behavior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2), 231-244.
- Cesario, J., Grant, H., & Higgins, E. T. (2004). Regulatory fit and persuasion: Transfer from "feeling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3), 388-404.
- Chen, M. Y. (2016). Consumer response to health product communication: The role of perceived product efficac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9), 3251-3260.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124-131.
- Festjens, A., & Janiszewski, C. (2015). The value of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2), 178-995.
- Flinkenflogel, N., Novin, S., Huizinga, M., & Krabbendam, L. (2017). Gender moderates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 priming on fairness considera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8, 503.
- Freitas, A. L., & Higgins, E. T. (2002). Enjoying goal-directed action: The role of regulatory fit. *Psychological Science*, 13(1), 1-6.
- Fujita, K. (2011). On conceptualizing self-control as more than the effortful inhibition of



- impul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4), 352-366.
- Fujita, K., Trope, Y., Liberman, N., & Levin-Sagi, M. (2006). Construal levels and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3), 351-367.
- Garbinsky, E. N., Klesse, A. K., & Aaker, J. (2014). Money in the bank: Feeling powerful increases sa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3), 610-623.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4), 321-326.
- Graham, R. J. (1981). The role of perception of time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4), 335-342.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2000). Making a good decision: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11), 1217-1230.
- Higgins, E. T. (2005). Value from regulatory fi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9-213.
-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o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4-18.
- Hofstede, Hofstede, & Mincov (2010). 차재호, 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3rd ed.).
- Joshi, P. D., & Fast, N. J. (2013). Power and reduced temporal discounting. *Psychological Science*, 24(4), 432-438.
- Kanagawa, C., Cross, S. E., & Markus, H. R. (2001). "Who am I?"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conceptual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 90-103.
- Kassam, K. S., Gilbert, D. T., Boston, A., & Wilson, T. D. (2008). Future anhedonia and time discount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6), 1533-1537.
- Kees, J., Burton, S., & Tangari, A. H. (2010). The impact of regulatory focus, temporal orientation, and fit on consumer responses to health-related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39(1), 19-34.
- Lee, A. Y., & Aaker, J. L. (2004). Bringing the Frame into Focus: The Influence of Regulatory Fit on Processing Fluency an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05-218.
- Lee, A. Y. & Higgins, E. T. (2009). The persuasive power of regulatory fit. In M. Wänke (Ed.), *The social psychology of consumer behavior* (pp. 319-333), New York: Psychology Press.
- Lee, S., Lee, A. Y., & Kern, M. C. (2011). Viewing time through the lens of the self: The fit effect of self construal and temporal distance on task percep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2), 191-200.
- Lee, A. Y., & Semin, G. R. (2009). 17. Culture through the Lens of Self-Regulatory Orientations. In R. S. Wyer, C. Chiu, Y. Hong(Eds.), *Understanding cultur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sychology Press.
- Liberman, N., Trope, Y., & Wakslak, C. (2007).

- Construal level theory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113-117.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18.
- Liberman, N., & Trope, Y. (2008). The psychology of transcending the here and now. *Science*, 322(5905), 1201-1205.
- Liberman, N., Trope, Y., McCreary, S. M., & Sherman, S. J. (2007). The effect of level of construal on the temporal distance of activity enac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43-149.
- Maddux, W. W., & Yuki, M. (2006). The “ripple effec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5), 669-683.
- Maglio, S. J., Trope, Y., & Liberman, N. (2014). From Time Perspective to Psychological Distance (and Back). In M. Stolarski, N. Fieulaine, W. van Beek(Eds), *In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ogilner, C., Aaker, J. L., & Pennington, G. L. (2007). Time will tell: The distant appeal of promotion and imminent appeal of preven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5), 670-681.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971.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 (2002).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inference: Evidence from behavioral predictions and lay theories of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 109-120.
- Pennington, G. L., & Roese, N. J. (2003). Regulatory focus and temporal dist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6), 563-576.
- Peetz, J., & Wilson, A. E. (2008). The temporally extended self: The relation of past and future selves to current identity, motivation, and goal pursui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6), 2090-2106.
- Pounders, K. R., Lee, S., & Mackert, M. (2015). Matching Temporal Frame, Self-View, and Message Frame Valence: Improving Persuasiveness in Health Communications. *Journal of Advertising*, 44(4), 388-402.
- Redelmeier, D. A., & Kahneman, D. (1996). Patients' memories of painful medical treatments: real-time and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two minimally invasive procedures. *Pain*, 66(1), 3-8.
- Sackett, A. M., Meyvis, T., Nelson, L. D., Converse, B. A., & Sackett, A. L. (2010). You're having fun when time flies the hedonic consequences of subjective time pro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21(1), 111-117.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20(5),580-591.
- Spassova, G., & Lee, A. Y. (2013). Looking into the future: A match between self-view and temporal dist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159-171.
- Shipp, A. J., Edwards, J. R., & Lambert, L. S. (2009).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temporal focus: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0(1), 1-22.
- Strathman, A., Gleicher, F., Boninger, D. S., & Edwards, C. S. (1994).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eighing immediate and distant outcomes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4), 742-752.
- Szpunar, K. K. (2011). On subjective time. *Cortex*, 47(3), 409-411.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 Wang, M., Rieger, M. O., & Hens, T. (2016). How time preferences differ: Evidence from 53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2, 115-135.
- Wong, V. C., & Wyer Jr, R. S. (2016). Mental traveling along psychological distances: The effects of cultural syndromes, perspective flexibility, and construal lev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1), 17-33.
- Zhang, Y., & Shrum, L. J. (2008).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 on i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5), 838-850.
- Zauberman, G., & Urminsky, O. (2016). Consumer intertemporal preferenc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0, 136-141.
-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 원 고 접 수 일 : 2019. 01.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5. 13.  
게 재 결 정 일 : 2019. 05. 29.

## **Matching effect of temporal distance, self-construal, regulatory focus and temporal consequences**

**Jieun Lim**

Ewha Womans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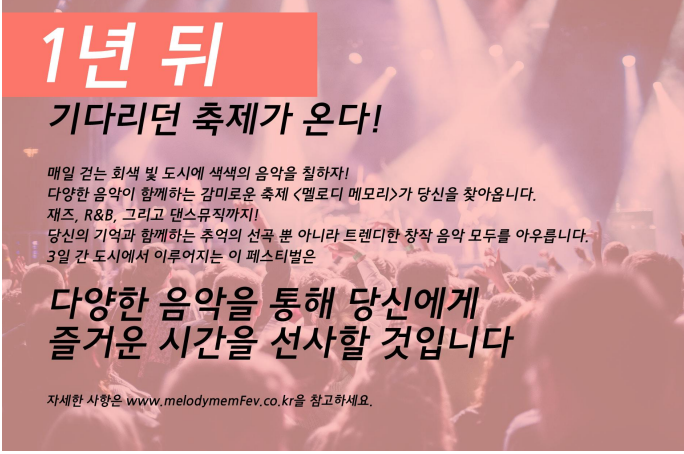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It describes two different temporal distance, which is temporal distance in construal level theory and temporal consequences. Also, the research examine matching effects of self-construal, regulatory focus, temporal distance using advertisement message and how it influences temporal consequences. Temporal consequences can be seen as a different type of time perception, which explains how long future events can affect. The result shows that compared to independent self-construal, individuals with a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onsider temporal consequences to be longer. Furthermore, there are matching effect of self-construal, regulatory focus and temporal distance, which seems to amplify the perception of temporal consequences, especially for people wit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Key words : self-construal, regulatory focus, temporal distance, temporal consequence*

임지은 / 가깝지만 먼 시간 지각의 역설: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의 적합성 효과

## 부 록

### 실험 자극물(광고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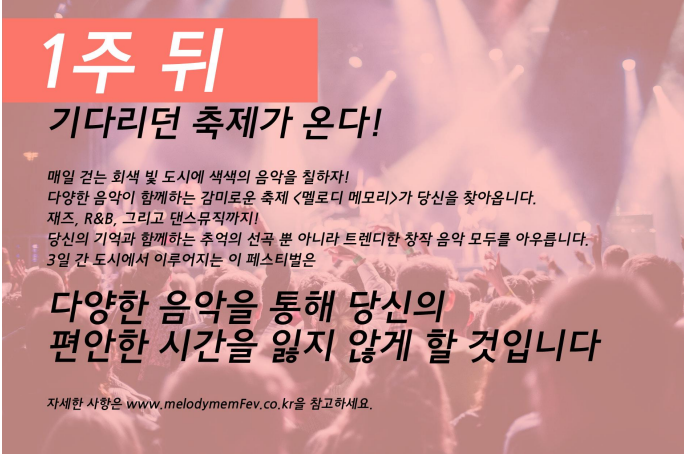
**1년 뒤**  
**기다리던 축제가 온다!**

매일 걷는 회색 빛 도시에 색색의 음악을 칠하자!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감미로운 축제 <멜로디 메모리>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재즈, R&B, 그리고 댄스뮤직까지!  
당신의 기억과 함께하는 추억의 선곡 뿐 아니라 트렌디한 창작 음악 모두를 아우릅니다.  
3일 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 당신에게  
즐거워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elodymemFev.co.kr](http://www.melodymemFev.co.kr)을 참고하세요.

1년 뒤(먼 시간적 거리)-촉진 메시지 조건



**1주 뒤**  
**기다리던 축제가 온다!**

매일 걷는 회색 빛 도시에 색색의 음악을 칠하자!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감미로운 축제 <멜로디 메모리>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재즈, R&B, 그리고 댄스뮤직까지!  
당신의 기억과 함께하는 추억의 선곡 뿐 아니라 트렌디한 창작 음악 모두를 아우릅니다.  
3일 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 당신의  
편안한 시간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elodymemFev.co.kr](http://www.melodymemFev.co.kr)을 참고하세요.

1주 뒤(가까운 시간적 거리)-예방 메시지 조건